

여수시, 유료 노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시범운영'



여수시가 노상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양공원 일원에 유료 노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한다. 여수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해 노상주차장 운영

해양공원 일원에 '바닥제어 무인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시범 구축

(주)이지스파크와 협약 체결하고 이달 중 중화동 사거리 시범설치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닥제어 무인정산 주차관제시스템'을 선정했다.

차량이 주차를 하면 바닥에서 차량 통제장치가 올라오며 출차 시에는 주차면 인근에 설치된 정산기(3~4면당 1대)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면 바닥제어기가 내려가 출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최근 ㈜이지스파크와 협약을

체결해 1월 중 중화동 카페베네에서 중화동사거리 구간 27면에 시범설치하고,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 징수가 어렵고 피도도가 높아 근무자들이 기피하고 불친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근무자가 주차안내를 하는 등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시범 구축 및 운영결과에 따라 2022년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 노상주차장(6개소)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사)여수광양항발전협 출범

"해양복합기능 활성화된 산업중핵항만 육성 목표"

지난해 12월 31일, 사단법인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식행사는 취소하고 소수의 내부 관계자만 참석하여 헌관식을 갖고 화상미팅 앱을 통해 현장중계 방식으로 출범식을 대신했다.

협의회는 최근 몇 년동안 부산, 인천 등 타항만에 비해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광양항의 재도약을 위해 광양항 입주기업 약 80여개와 지역 오피니언리더,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해양관광 등 해양복합기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여수항의 비전을 함께 찾기 위해 여수항 관계자들도 회원으로 구성하는 등 여수광양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준비과정에서 이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는 추진해왔다.

컨테이너 터미널 야드 내, 배후물류단지 전용블럭 설치 등 통한 상하차 속도개선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의하여 2021년부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체선, 체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정인화 회장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인 광양항이 아직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스마트물류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추진된다면 광양항은 산업중핵항만으로써 그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여수광양항의 미래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수산물 '남도장터'서 구매하세요"

유튜브 '국민안내양TV' 보성 농수산물 집중홍보

보성군이 전남도청과 국민안내양TV가 함께 진행한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에서 소개했다.

MC·가수 김정연, 개그맨 오정태,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서동순 팀장이 보성 농업인과 함께 보성군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에 나섰다.

이날 국민안내양 TV를 통해 보성군 농·특산물 유기농 보성 맑은 녹차 '우전'을 비롯해 싱싱농원의 딸기 블랜드, 풍뎉이 청국장, 다래사랑 보성 골드 키위, 보성군 농협 쌀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의 녹차미인 보성쌀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됐다.

보성군은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보성녹차'와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별교꼬막', 전국 생산량 1위 '보성키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성군 농·수산물 특산물 생산 능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판촉행사가 생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남도장터를 통한 매출 확대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정원도시' 순천, 천만그루 나무심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지난해 138만주 식재...살기 좋은 생태도시 조성 밑거름



순천시는 숲과 나무로 사람이 숨쉬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지난해 138만주를 식재했다.

순천시민과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2019년 145만주를 식재한 데 이어 2020년 목표인 120만주를 15% 초과달성한 138만주를 식재하여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2019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8년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미세먼지, 폭염,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축과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생활속 정원문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도심 전역을 숲과 정원으로 가꿔 나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세계측지계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세계측지계 시범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순천시는 2021년 세계측지계 좌표체계 전면시행에 앞서 2020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세계측지계 기준 도면에 의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시내 37만 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변환성과의 정확도 및 기준 측량성과 유지를 위하여 재변환 및 검증을 실시하여 세계측지계변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리적위치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리적위치로 변환하는 업무로, 100년 전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측량 제작되어 한반도의 위치가 남동쪽으로 실제보다 약 365m 벗어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어도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의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게 되며, 실제 토지의 위치와 권리면적, 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는 변동이 없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새해에도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 시작

청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50% 지원...만 18~39세 누구나

광양시는 새해 1월 11일부터 2020년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의 예산으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광양시가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업 준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서점을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 진흥 시책과 '청년희망 행복광양' 시책에 맞춰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청년 도서 구입비는 청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도서 구입비의 50%(자부담 50%)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구입 도서의 30% 이상은 반드시 취업 및 자격증 관련 도서를 포함해야 하며, 2019년과 2020년 연속 신청자는 2021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물결

광산구